

2020년 3월의 6·25전쟁영웅 이재국 공군 소령

(자료제공 :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☎044-202-5712)

◆ 불굴의 투지로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다 ◆

국가보훈처는 ‘이재국’ 공군 소령을 3월의 6·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.

- 이재국 소령은 6·25전쟁 중 7개월 간 99회에 달하는 전투 출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키고, 아군의 사기를 고양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.
- 193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이재국 소령은 1952년 8월 1일 조종간부 1기생으로 임관 후 같은 해 9월 11일에 강릉기지에 배속되어 북한 지역에 있는 적의 병커, 유류저장소, 포진지, 보급품집적소 등 군사시설 파괴 업무를 수행하였다.
- 1952년 10월 한 달 동안에는 거의 매일(28회/월) 전투 비행에 나섰으며, 1952년 9월 23일 첫 출격한 이래 7개월이라는 짧은 작전 참여 기간 동안 총 99회 출격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.
- 1953년에는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에 참가하였는데, 특히 고성 일대의 지상군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참가하여 적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.
- 1953년 3월 6일에 고성 남방의 적진을 공격하던 중 적의 대공포화에 피탄되어 기체가 화염에 쌓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과감하게 조종하여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. 이재국 소령은 이 공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나 불굴의 투지로 재기하여 1955년에 다시 조종간을 잡았으나 안타깝게도 1955년 3월 T-33 제트기 도입을 위한 임무 중 순직하였다.

- 이재국 소령은 6·25전쟁 중 빛나는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1953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.



이재국 공군 소령
(1932. 3.26. ~ 1955. 3. 9.)
상훈 : 을지무공훈장('53)